

# 山...이 되어드리겠습니다

우리 어릴 때의 아버지의 뒷모습은..

“산” 처럼 듩직하고 거대해서..

뒤에서면 아버지 몸체에 앞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..

그럴 때가 있었어.. 내가 철이 들면서..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 가면서..

산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지..

지금은 그 산이.. 내 뒤에 있어..

거대했던 모습은 어딜 갔는지..

이제는 내 모습에 가려서 보이질 않아..

누구에게나.. 아버지가 아니라도 “산” 같은 존재는 있어. 어떤 의미로든.. 말이야..

산이. 그 산이.. 내 뒤에 숨어 버렸을 때.. 그 때엔..

내가 “산” 이 되야 하는 거지..

참..... 다행인건... 내 “산” 이 내 뒤에 있어서

내 눈물을 보지 못한다는 거야..

내가 어리석게 고개를 돌리는 일만 없다면..

그럴 수만 있다면... 분명히... 난 “산” 이 될 수 있어!

사랑하는 사람에게 “山” 이 된다는 건...

순탄히 행복을 느끼는 일보다... 더 사랑할 수 있는 일입니다.

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... 그 사람에게 “산” 이 되어 주세요.

